

법정 스님은 마음을 여는 '시작' 같은 어른

어깨춤 추는 선무당 임의진 목사

“제 가슴은 예수인데 머리는 맑시증입니다. 그래서 조·중·동하고는 불편하고, 글도 한겨레나 경향신문밖에 받아주지 않아요. 빨갱이라고. 어떤 동물이 빨간 빛깔을 처음 알아보고 가장 귀하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먹게 된 순간 사람이란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빨갱이가 좋은 건데.” 강원 남녕교회에서 십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병풍산 자락에다 흙집을 짓고 안데스 고구마라는 야콘이나 블루베리, 감자 농사를 지으며 그림 그리고 노래도 하며 어깨춤 추는 선무당 임의진 목사(45). 혼자 살기에 집안 일이 적지 않다. “집에 있으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요 산발 일구고 일이 많아요. 장작도 쪼아 하고 개들도 돌봐야 하고 빨래하지, 밥하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던 임의진 목사. ‘예수를 닮아가고 부처를 닮는 삶은 뜻 없는 삶이고, 우상숭배다. 참 삶이란 임의진으로 사는 삶’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목사였다가 떠돌이별이 되어 이것저것 다 해요. 글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스스로 ‘어깨춤 임의진’이라 부르는 가무춤에 능한 신바람 목사 임의진은 신선이 돌아오는 회선재 회仙齋에서 선무당仙舞堂으로 산다. “선무당, 난 진짜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나를 좋아하지 마라. 그런 이름 없음을 주는 즐거움. 묻히는 삶, 비껴서는 삶이 귀하게 느껴져요. 주목받지 않음이 종교인으로 사는 삶인데, 스타목사가 아닌 거름목사, 꽃이 되기보다는 거름이 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법정 스님은 거름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 세상에 벽을 만들지 말고 문을 만드는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예전 선비들이 시시거무詩書歌舞에 능통하듯이,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막고 안으로 깊어지는 길을 찾아가다보니 예술인이 되어가요. 연민으로 경직된 세상, 불평등을 해제하고 해소시키는 일이 사제가 할 일이지요.”

임의진 목사는 무등산 중심사 일철 스님과 무등산 개발을 막는 일로 만나 투쟁을 함께하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단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무등산풍경소리’란 음악회를 진행했다. 올해 4월로 100회를 맞는데 유수한 가수들이 노래하고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음악회로 소중한 광주문화자산이다. 미항사 금강 스님과도 서로 좋은 닮아주는 인연을 맺은 종교를 뛰어넘은 길동무 사이이다. “일철 스님과도 피동갑인데 제가 동생이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산책을 할 때도 남자 둘이 손잡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만, 무등산풍경소리음악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3년 간암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해남 미항사는 창건한지 천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절로 모셨는데, 범종불사를 한다고 해서 남녕교회는 신자들이 성령강림절에 낸 헌금 23만 7천원을 자극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항사에서 교회 종을 달아주셨어요. 타종식 날 스님에게 먼저 종을 치라고 하나가 할머니들이

막아서요. 교회 종인데 목사님이 먼저 쳐야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스님들은 다 동방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 먼저 치셔야지 어떻게 목사가 먼저 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 오신 동방 박사라는 말에 단박 박사님이 치셔야지 그래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교단 소환 명령이 떨어지고 한겨레에 기사가 나가면서 죽이겠다는 전화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법정 스님은 임의진 목사가 목회하던 남녕 강진에 가끔 다녀가셨다. 백련이 지닌 깊은 기품을 좋아하셨던 스님은 강진군 성전면 조그만 금당연못에 핀 눈부시도록 새하얀 백련을 무척 아끼셨다. “금당연못이 우리나라 백련 원류예요. 제게는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해준 연못입니다.” 류시화 시인 연락을 받고 법정 스님 연못 마지에 동참한 임의진 목사에게 스님이 말을 건넸다. “임 목사, 잘 지냈어요?” “스님 덕분에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무슨 덕분, 늙은이는 기도받이 약해.” “저는 기도에는 얇고 바흐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 책에 보니까 바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무반주 첼로. 모든 게 무반주 첼로예요. 저 바람소리도 그렇고 동물 내리는 소리도 그렇지요. 단순 소박하고, 겸박하고 맑아요.”

법정 스님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누리는 자유로움 좋아했기에, 영혼이 자유로운 임의진 목사를 만나러 오면서 자연스레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렸다. “법정 스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르바 캐릭터라고.

**예수를 닮아가고 부처를 닮는 삶은 뜻 없는 삶이고, 우상숭배
참된 삶은 자기답게 사는 삶
꽃이 더 보다는 거름이 되길**

권정생 선생님과 저를 아껴주셨는데, 제게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예수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가장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 가운데 결혼까지 하는 개신교 목사가 가장 진화된 모습이지요. 종교인이 할 일은 궁극에는 종교를 없애는 데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수행자가 평범한 세속에 끼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임의진 목사, 남녕교회에서 10년 목회 생활을 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일이 신자들이 내어놓은 돈으로 살아가는 일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제 캐릭터가 은둔 캐릭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방한 쪽으로 흐르기 쉽죠. 제가 TV 출연 파우를 좋



임의진 목사는 동네에서 임氏로 불린다. 그는 적격한 삶이 자신을 더 깊게 한다고 말한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법정 스님이 계셨어요. 얼굴 팔려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임목사답게 살라고 이르셨어요.”

아했더라면 오늘 저는 없었을 테지요. 저도 철없을 때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법정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여성지에 모습 드러내지 말고, 얼굴 팔려라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 엄격하고, 임목사답게 살라고. 그러면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잠은 하늘 줄을 놓지 말라고. 그 뒤로 이것 TV출연을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기를 지켜가려고 해요. 더 숨으려고 애 쓰는데 글을 쓰다보니까 인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샅뽀는 많이 가두고 거름목에는 더욱 문을 열려고요.” 자유인이 되고자 출가를 한 법정 스님은 단순하고 간결한 삶 안에서 자유를 찾아, 가장 절제된 수도승으로 남았다. 절제가 없다면 자유로움은 빛을 잃는다.

“법정 스님도 때에 따라 큰 욕을 해대셨어요. 스님이 4대 강이나 환경 파괴 문제를 아주 격렬하게 말씀 하셨잖아요. 말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어른도 계신데 스님은 흐트러지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건 아니다!’ 분노하고 결기를 세워주신 스님이 너무 고맙었어요. 수행자는 사회 마지노선이잖아

**임목사는 ‘조르바’ 캐릭터
예수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목회를 하며 부담스러웠던 일은
신자들이 낸 돈으로 살아가는 일**

요. 하한선. 그걸 스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나 석가모니하면 평화로운 모습만 떠올리지만 그 분들이야말로 세상 벽살을 잡아 뒀든 분들이었다.

임의진 목사는 법정 스님 삶에서 특별히 경계 없음을 배웠다고 말씀한다. “스님이 당신을 가두지만 그 까닭은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승려로써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경계가 없으셨어요. 어느 해인가. 성탄절 전에 길상사엘 갔더니 밖에다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고 하는 팻집막을 걸 어왔더라고요. 점심공양 자리에서 법정 스님이 ‘예수 왔다고 팻집막도 붙여줬으니, 임목사 많이 먹

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시작 같은 어른이세요. 스님은 저를 보시면 언제나 불일암 같은 교회 잘 하고 있는나고 안부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명동성당에 가진 스님 모습만 떠올리지만, 작은 암자 같은 남녕교회에 오신 스님도 계시요.” 임목사는 법정 스님은 당신 씨앗을 던져준 분이라고 한다.

“스님이 <오두막 편지>라는 책을 내시고 나서 제 책 <잡꽃 피는 마을>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서 신문광고를 같이 했습니다. 감히 제가 스님하고 한 지면에 나란히 오르는 영광을 누렸죠. 스님이 책에 사인해서 주시면서 ‘읽을 것 없다. 임목사 글은 펼칠 뻔한 삶이 있는데 내 글에는 삶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몸 둘 바를 몰랐어요. 스님은 좋은 것만 보면 갖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이빠. 옛날에는 여자도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마음에 없고 착잔에만 마음이 있네.’ 그러시면서 지금도 좋은 글을 보면 나도 저런 글을 써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드신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게도 이미 좋은 게 많은데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요.” 그런 삶이 스스로 생각해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임목사. 요즘 러시아 정교회 수도승 은수자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黑龍의 해, 흑룡족자로 만사대길 -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에 집안 및 사업장 벽면에 흑룡족자를 걸어놓으면 협찬 용의 기운으로 사업번창, 소원성취, 건강기원, 삼재소멸(쥐피, 용피, 원숭이피)



■ 흑룡족자 : 폭 60cm 길이 93cm
재질 : 비단천 / 가격 3만원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운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색로 매듭한 팔찌를 함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해상용왕 높이 82cm
문수동자 높이 70cm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좌우협시분)
재질 : 마블(특수물)
가격 70만원
(해상용왕, 문수동자 1set)



■ 독성나만존자
높이 74cm
재질 : 마블(특수물)
가격 50만원

고 전 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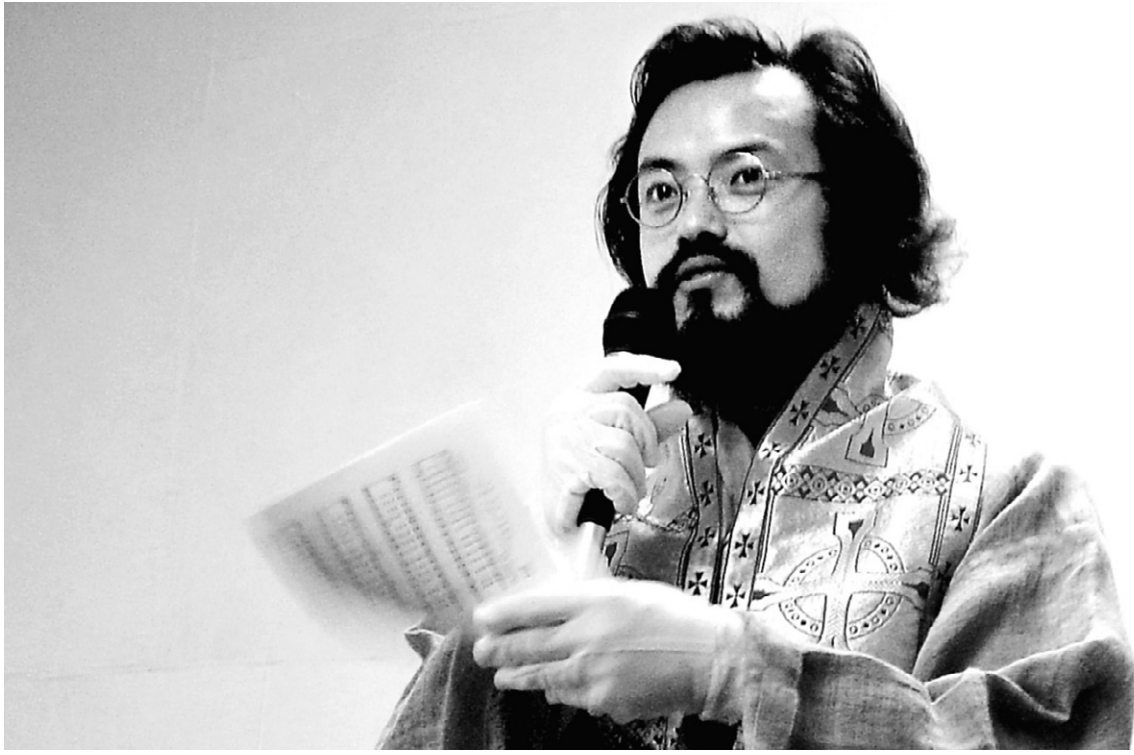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법정 스님과 임의진 목사



임의진 목사는 평생 잘한 일 가운데 교인들 헌금 걷어서 교회 짓지 않아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隱修者, 은둔수도자들 책을 읽으면서 은산처에 숨어 사는 삶을 의미한다. “문패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선 그저 임씨라 하죠. 뿌듯해요. 그런 삶이 저를 닮아 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법정 스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겨요. 한 달에 열흘은 서울 가서 음반회사 일을 보면서 조금 벌어요. 밥벌이를 해야 하니까요. 법정 스님이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탈 때 과속을 해서 딱지가 날아왔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을 벗어날 때 통째로. 되게. 적정한 삶이야말로 저를 더 깊게 하고 혼자 누울 때 그 서늘함이 제 영혼을 어루만지고.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임의진 목사는 평생 잘한 일 가운데 교인들 헌금 걷어서 교회 짓지 않아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은 일이다. “남북교회는 있던 교회를 그냥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형식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 안에서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연을 적게 맺으려고 해요. 더 좋은 친구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찾기보다는 있는 친구하고 잘 지내면 되잖아요. 모자라지만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제자를 두지 않는 삶도 참 행복해요. 그 점에서는 법정 스님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행자로 혼자 도보여행하고 가는 거니까.”

3세계 전사로서 로마국가보안법에 맞서는 삶을 살다가 예수 삶이 좋았다는 신념을 가진 임의진 목사. “제 삶이 작은 게릴라 투쟁이에요. 저는 주류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3세계 월드뮤직, 스페인노래나 포르투갈노래, 멀리 아프리카노래를 골라서 들려주는 일을 해요. 요즘엔 노르웨이노래 수입한 걸 편집하고 있어요. 다양성을 만들려는 투쟁이지요. 수업을 기르는 것도 다양성 투쟁 가운데 하나예요. 수업을 기르니까 인사동파로 오해를 많이 해요. 남북교회에 있을 때 한복을 입고 주일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니까. 그랬더니 주사와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제 안을 들여다보면 음반이고 악기고 다 외국이에요. 나라밖 게 어디 있고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비범함이에요.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저 같은 목사도 하나쯤 있어야 하죠.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리라 여기는데,

스님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셨다

수행자는 사회 마지노선

스님은 당신 씨앗을 던져준 분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도 있어야 해요. 삶이, 호흡이 기도인데 달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예요. 욕심 있는 기도는 기도가 죄예요. 요즘 제 기도는 “그만 돌게요. 포기할 게요. 안 할게요.”예요. 행여나 또 인연이 생길까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갔다며 예수 자살론을 폈다. 확신범,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내 모두를 거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판을 깨는, 포틀레타리아 혁명이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처럼 거대제국, 케피탈리즘을 깨뜨리는 힘에요. 기존 가치를 언제든지 부정하는,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아니다. 더 나은 것들을 끊임 없이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또 꿈을 깨게 하고 또 꿈꾸게 만들고, 자꾸 틀을 깨는 데 있어요. 법정 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도 방외외이지만 뿌리가 본류에 있어요.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 찾아? 절대 아닙니다. 전통을 가져 오되 전통에 드러내어 있는 세속주의를 걷어내서 오늘 어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저 경전을 따라 되라는 일은 시체운반이죠. 법정 스님이 남다르셨던 까닭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청빈하게도 사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누구나 알기 쉽고 따뜻한 현대말로 풀어서 들려주신 일이에요.”

지난해 10월 5일 조계종단은 한글 <반야심경> 표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모든 법회에서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법정 스

님 노력이 크세요. 대중이 그걸 원하게 만드셨죠. 저도 그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인데 법정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아름답고 오묘한 내용을 대중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불교가 어려우니까 내가 해석해준다’는 거룩한 사람만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경전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 주셨어요. <숫타니파타>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구나. 법정 스님이 불교 현대화에서 가장 큰 화두를 던진 분이다. 스님이 참 큰일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법정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일은 스님에게 묵이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정 제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제 길을 닦아가는 일이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에요. 절집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저는 바깥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불자라니까요. 저는 불교도다운 그리스도인이예요.”

“살다보니가 그림자지, 노래하지, 시인, 수필가, 동화작가이기도 해요. 예수동화를 썼는데 이번엔 붓다 동화를 쓰고 있어요. 이 부처님을 기적을 하지 못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냥 우리 동무인데 인연이 너무 많아, 사람들 아픔을 같이 느끼려는 동무예요.” 신바람을 일으키는 여객선인 임의진 목사는 “내 시를 가지고 내가 노래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 음반 <멜랑콜리 맨>을 내고 3월 25일 오후 4시 유나방송 담마홀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임의진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박도해시 ‘회향廻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처가 위대한 건 /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 고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 부처가 부처인 것은 / 회향했기 때문이다 // 그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 세상을 바꿔냈기 때문이다 ... 그대 /오늘은 오늘 연꽃을 보여 다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사색의 안마

거리를 걷다 보면 안마나 마사지 간판이 눈에 띈다.

안마는 고대 중국의 침·뜸과 더불어 발달한 한방의료의 물리요법으로서 안교도인법(按摩導引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래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수나라의 <병원후론(病源候論)>에 당시 도사(導士)들 사이에 성행했던 양생방법에 안마가 소개되어 있다. 당나라의 <천금방(千金方)> 권27 양생편과 <천금익방(千金翼方)>에 안마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 여원은 억안조마(抑按調摩)로 지압·마사지와 함께 일점압박(一點壓迫)의 압자극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합압을 하여 생체에 작용해 압박사로서 신체조직·내장기능의 변조를 조정시킨다. 안마의 명칭은 시대변천에 따라 안교(按摩)·추장(推拿)·마사지 등으로 불렸고, 일제강점기에는 지압이라 불렀다.

마사지란 말은 아라비아어의 ‘압박(mass)’과 그리스어의 ‘주무르다’에서 기원한 것이다. 손으로 몸의 순환계·신경계·근육계에 생체 반응을 일으키도록 누르거나 두드려 기능의 상태가 달라짐을 조정한다거나 질병의 치료를 하는 시술(施術)이다. 물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업소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날 안마는 상당히 변형돼 향락문화의 한 유형쯤으로 간주하게 됐다.

옛적부터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몸의 치료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술 또한 도외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몸의 기능 못지않게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성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참된 스승이라고도 한다. 성인들은 생계를 꾸리는 데 치중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조금도 관심을 끌지 않았다. 진정한 삶의 역설은 우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우리 곁에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 유형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체험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 때 마음에 환희가 따르게 된다.

붓다의 자비는 무슨 색깔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아마 흰빛이 아닐까.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모두 포함한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흰빛과 같이 자비의 속성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대를 무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비는 증오 분노 질투 탐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合)이고 총화이다.

진실한 자기의 발견은 사색에 기초한다. 누에는 열심히 먹고 배설을 거듭해 마침내 누에고치 속에 자기 몸을 가두어 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세계이다. 명(明)과 무명은 손바닥과 손등의 작용과 흡사하다. 마치 손을 쥐면 주먹이라 하고 손을 펴면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나 게를 보고 있노라면 느끼는 바가 많다. 그들은 등에 못이나 되는 수업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인간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수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무명의 누더기를 벗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안·이·비·

흰색은 모든 색 섞인 빛깔

부처님 자비도 흰빛과 같아

분별없고 상대를 무한히 수용

사색은 흰빛으로 가는 자기 정화

설·신·의라는 작은 구멍으로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숨을 쉬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수록중생의 삶과 그 궤(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소리는 우주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흔치않다. 아마 제일 큰 소리는 내면의 소리일 것이다. 사색의 모미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데 있다. 내면은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큰소리이다. 나 외의 모든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를 역력히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는 신기하게도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가 된다. 사색은 무수한 주파를 보내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고 말이다.

붓다의 사색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험을 하였으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사색하는 일이다. 사색은 자기정점이며 자기정화 작업이다. 사색을 통해 무명의 실타래는 단번에 싹둑 잘라진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악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변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 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형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러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선택이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탑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불룩 전선 10년
5년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